

* 지난주 강단제목 : 고난을 통해서 발견한 욕의 완전복음 (욥 42:5, 약 5:11)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 | |
|--------------|---|
| ★ 임례송 | 오르간 |
| ★ 예배의 부름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 ★ 응답송 | 찬양대 |
| ★ 예배선언 |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 ★ 경배의 찬양 |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같이 |
| ★ 고백과 용사의 말씀 | 설교자 |
| ★ 주기도 |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 ★ 성시교독 | 59. 시편 136편 / 인도자와 회중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2)

- | | |
|-------------|---|
| 찬송 |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 다같이 |
| 중보의 기도 | (1부) 최신헌 장로 (2부) 이미자 장로 |
| 성경봉독 | 에스겔 36:26-27(구약 1208쪽), 베드로전서 1:23-25(신약 378쪽) / 인도자 |
| 찬양 | (1부) 시편 100편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내가 매일 기쁘게(편곡 : 김진아 사모) / 시온찬양대 (현장) |
| 말씀의 선포 |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참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난 베드로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전서- / 설교자 |
| 봉헌 |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
| 교회소식 | 설교자 |
| ★ 결단의 찬송 | 예수 전하세 / 다같이 |
| |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
| ★ 파송의 말씀 | 설교자 |
| ★ 봉헌기도 · 축도 | 정윤돈 목사 |

다음 주 기도 : (1부) 최진희 장로 (2부) 김금남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사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유경선 권사 (오후) 이영경 집사
인도, 설교	(오전) 이현규 목사 (오후)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박난순 권사

(오후) 임혜연 집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나의 237나라(아메리카 대륙)
설교	심한결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나의 237나라(아시아 대륙)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목) 박범서 목사

(화) 이현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5년 참사랑교회의 응답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

(신명기6:5, 마태복음6:33)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 다음 주 주일(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층 참사랑홀에서 램네프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 이번 달은 연합예배 후 교사대학 및 구역장 교육은 없습니다.
 - 연합예배 후 오후 3시 30분부터 각 부서별 성탄테코작업이 진행됩니다.
- 이번 달부터 진행 중인 본교회의 연말 일정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7 AM9:30 연말교역자회의, 12.7 연말당회, 12.21 청지기임명, 12.28 예결산위원회, 1.4 연말제직회, 1.11 공동의회)
- 참사랑 캘리그래피 RUTC팀에서 성도님들의 연약 말씀을 캘리그래피로 작품을 만들어 말씀묵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은 5층 본당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 : 11월 30일(주일)까지)
- 2025년 성탄축제가 12월 21일(주일) 오후 5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성탄축제에 전도대상자를 초청해서 성탄의 참 의미를 전달하려 합니다. 전도대상자가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5층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용지에 대상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6년 참사랑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5층 본당 로비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연말에 참사랑 램네프 해외어학연수가 진행됩니다.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 * 본교회 장학현금계좌(신한은행 100-033-576780)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명 : 000 어학)
- 매일 구원의 길을 기록하실 분들에게서는 본당 앞에 준비된 용지를 가지고 가셔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감 및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예배 혹은 교회 출입 시에 실내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수요오전예배, 수요저녁예배, 금요심야기도회 / 1층 비전홀
 -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네프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해서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금 및 교우소식

-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담임목사 : 11.25 237화요제자훈련 - 덕평 RUTC, 11.26~29 2025 RCA - 미국 워싱턴)
- 대학입학시험 일정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 램네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원, 문정민, 송지수, 안나근, 양승우, 여명, 황세희 / 명단에 누락된 분은 교역자실로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강돌봉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 금요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네프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트릭킹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교회소식

- 5) 수목캘리그래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랩넌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쿼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화(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중직자대학원 강의를 오는 오후 5시에 본교회 3층 제2랩넌트실에서 있습니다.
3. 237화요제자훈련이 11월 25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4. 2025 RCA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행1:8)'을 주제로 11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됩니다.

11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0주차	유럽전도집회 및 유럽산업인특강(10.28~30, 독일 임마누엘교회)
1주차	기관총회(2) / 237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4, 덕평 RUTC), 제1회 북한선교대회(7~8, 덕평 RUTC)
2주차	연말교역자회의(10), 전국여전도회 월례회(11, 참사랑교회), 세례문답식(15) / 제9차 2025 아시아산업인대회(11~12, 말레이시아)
3주차	추수감사주일, 세례식(16), 총회 노회장서기 연석회의(17~18, 대전 계룡스파텔), 김장(19~20) / 중독예방사명자대회(20, 덕평 RUTC), 태영아부모 및 사역자수련회(21, 덕평 RUTC), 램넌트데이(22)
4~5주차	램넌트연합예배(30) / 237화요제자훈련(25, 덕평 RUTC), 2025 RCA(26~29, 미국 워싱턴)

11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현금위원	(위원장) 이수용 (위원) 양경아 주은경 이영경 정수환 신성원 전주율
성찬위원	(5층)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라종화 김현 김경희 (6층) 배승찬 양경심
안내위원	(위원장) 오국환 (1층) 양경심 김미선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신 6:5, 마 6:33)”으로 전 성도와 랍넛트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소서.

- 1)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와 선교와 전도하게 하소서.
- 2) 복음집중의 전도집중, 말씀집중의 치유집중, 땅끝집중의 선교집중으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소서.
 - ① 매일 구원의 길 묵상, 복음요절 암송,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의 복음집중의 미션에 도전하게 하소서.
 - ② 성경 1독, 성경 쓰기, 복음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말씀집중의 미션에 도전하게 하소서.
 - ③ 전 성도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에 도전하며, 나의 땅끝을 찾는 땅끝집중의 미션에 도전하게 하소서.
- 3) 2025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2025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1.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2. 5인 1조의 탐을 형성하여 70지교회의 응답을 받는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3.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
 - 5)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4. 전 성도가 나의 나라,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를 정하여 진정한 선교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237나라 5천 종족)
5.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6.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7.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8.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9. 300캠프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핑센터, 노인정 등)
10.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11. 70나라에 병원, 약국 등 치유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가동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정아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환·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종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0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진주 오국환 이은희 박동영 최진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영재 양경심 강현자 이수용 이미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훈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주철우 정선희 심주환 김현숙 정민호 이서은 이용곤 김경환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민경환 최승화 박준민 황인선 권은희 이명재 구운진 배형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혜정 김남숙 최양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 현 임경미 김미선 김순자 최칠규 한영화 여준석 장영호 김성열 배명자 신옥희 배승찬 김순호 김태은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박범서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종남 김주영 김영진 윤소현 변연숙 임혜연 김성순 백순덕 김요한 김복남 김욱천 김순이 서성원 정수환 박서진 강경현 김선희 김금남 이현주 장경희 임영순 유경선 정년영 양은숙 공영호 박봉기 박준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사 김진아 심한걸 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 김원일 김경업 유경형 라종화 주재찬-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 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최신혜 이마자 김금남 유승범 주은경 김순조 김영진 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윤 이은덕 이은희 김정순-김용관 이영선 장소녀 김소라 김순자 김영순 신혜선 박희영 박인자 조성균-김갑래 최아영 김준석 김희권 호민수 이순근 윤수연 주철우-정선희 김윤우 정향란 김나경 임소순 유제숙 김경애 정민호-이서은 한영화 윤태산 김경연 윤순옥 심성하 박사이 한태희 임혜연 임영순 김세희 정예숙 이상구-이정미 박찬열 안도근 조재형 김태운 조현지 정수환 송길호 최영국-김윤지 여 명 유승환-최아현 이진우 장유선-이정수 김현성-이미화 고진순 여현지 이연규 김승훈-김혜인 전주율 한경숙 김영희 이민수 김숙희 김창균-임예진 조부영 이현주 이효숙 채송아 양은숙 나경철-신현식 안선희 박주은 권은희 이민형 방주은 이주형 장학준 배준서 안예근 무명20
집 일 조	정윤돈 정은숙 유제숙 문길순 이순근 정향란 배형석-박인자 주철우-정선희 김현성-이미화 유충현-강공이 배승찬 배준서 정민호-이서은 안나근 조현지 이 석 김창균-임예진 김성재 윤태자 정연규-이은숙 김경희 오이라 손혜옥 임경미 권은희 이선아 홍경아
감사헌금	정윤돈 최선영 전민식-구순자 양경아 박숙자 문혜영 김지영 박학규 김애경 이은희 양경심 정세완-박희영 이계옥 정민호-이서은 박사이 홍경아 김현진 방주은 조재형 박영인 김태을 조연희 이은숙 박동영 최진희 니영수 무명
추수감사	정윤돈 최정웅 최선영 박범사-김진아 정지혜 이현규-김수진-이서은 김원일-전인숙 이병부 이수용-이미자 이영선 최명홍 이계옥 배형석-박인자 장길순 주철우-정선희 여동훈 백소정 김태운 정년영 조성균-김갑래 유경선 장소녀 이 명-배승찬-배준서-배현서 김 한-임경미 임혜미 박영자-양경심 정연규-이은숙 김춘례 김경희 김금남-김지열 최아영 양경아 김희권 김현성-이미화 호민수 주예진 김영진-최혜숙 임혜연 최철규-한영화 김정순-김용관 김순호 이명재-구윤진 최신혜 노은현 안민희 유제숙 정세완 박희영 김애경 문길순 오신자 김정순 이정윤-이은덕 김미현 윤수연 김준석 정향란 이영경 심주연 김계자 김영순 이서은 정민호 윤태산 최일숙 임소순 김경애 이은숙 이정미 유승환-최아현 최승화 박찬열 오이라 조현지 정수환 황혜주 윤자현 방주은 신승훈-박영인 김성재-윤태자 고진순 박난순 여현지 김승훈-김혜인 한경숙 주재찬-권혜경 이민수-김숙희 도정호 김영희 권은희 조부영 이현주 이효숙 채송아 송영희 유경형-라종화 임근일 양은숙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이은희 박지영 나경철 신현식 손혜옥 박주은 무명4
심방헌금	지복순
차량헌금	박동영 최진희
일천번제	최선영
선교헌금	정윤돈 박범사-김진아 주철우-정선희 김순조 박사이 김현성-이미화 김지영-김민영-김근조 임영선 정예숙 안도근 정수환 유승범-주은경 방주은 조현지 김승훈-김혜인 정연규-이은숙 박동영-최진희 김경희 오이라
필리핀신학교	정연규-이은숙
스리랑카 자유센터	정민호-이서은 정수환 방주은
스리랑카 치유센터(2025년도 합계)	4,859,000원
헌당헌금	정윤돈 최선영 전정아 이현규-김수진 주철우-정선희 김현성-이미화-김지영-김민영-김근조 배형석-박인자 김순호 박사이 임영선 정예숙 유승범-주은경 방주은 조현지 정수환 김승훈-김혜인 정연규-이은숙 박동영-최진희 손혜옥 오이라 박세연 심주연 심지연 주이서 유민상
장학헌금	정윤돈 주철우-정선희 김순조 박사이 유승범-주은경 안도근 정수환 김승훈-김혜인 김창균-임예진 정연규-이은숙 박동영-최진희 방주은
어학연수	정수환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최재경-이용도
RUTC헌금	주철우-정선희 정수환 방주은 김승훈-김혜인 정연규-이은숙 박동영-최진희 오이라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5.11. 12. ~ 2025. 11. 18.)	

헌당헌금 (2025년도 합계)	111,120,560원	차량 구입헌금 (2025년도 합계)	1,15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5년도 합계)	17,771,895원	어학연수헌금 (2025년도 합계)	3,622,000원

헌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59,000,000엔 (한화 4,360,500,000원 / 100엔환율=9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헌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5년 구역조직 - 1교구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이현규 목사 | 총무 : 이미지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박동영)	박인자	최진희	<u>최정웅</u> <u>전정아</u>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u>박인자</u> 배영광 정우연 배고는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정혜찬
	②오금2 (유승범)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진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이재풍 김주영 이승현 이지훈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주중성 박희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재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정동주 정동훈 <u>이은순A</u> 김홍기 문길준 김갑래 임상식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이재준 이시연
	④방이2 (최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박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장윤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리종화	홍경아	유경형 리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권우현 유승환 최아현 유나립 유하립 이영숙 박철남 정민진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김대옥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고정호 고정협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진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미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오난희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최양호 오난희 최고는 강정자 최칠규 한영화 최종인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현 손보국 손병순 이정택 <u>이은순B</u> 김준석 윤수연 조수영 이가원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스톱모 강지우 전영종 유지열 송수민 김유나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u>이은숙</u> 김춘례 권영숙 구성하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u>김계자</u>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u>양순옥</u> 임선규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최명홍 <u>이계옥</u>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김승훈 김혜인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김수정 김성애
	⑫서울 경기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권세미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룬 김유진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u>이은진B</u>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5년 구역조직 - 2교구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담당교역자 : 심한결 목사, 이현규 목사 | 총무 : 이명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최양호)	장길순	이영순	유윤식 장길순 유효진 유윤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김미선	이아름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아름 정년영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정연 허경열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에 코 한공순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황인선	박엽재 양경심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은옥 조유연 조웅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6지역/ 김순호	⑮강서 (도상철)	정선희	강소영	도상철 채희은 도성용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김경현 강소영 김유남B 김소은 김세희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종관 서숙정 이지한 이주한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⑯강남 (김석재)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김순호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김석재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김경길 박순연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두원
	⑰구리 (김순호)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⑱오금6 (배승찬)	이명	김숙희	박범서 김진아 배승찬 이 명 배준서 배현서 이민수 김수환A 이하연 이하준 윤순옥 구자성 송영희 이명재 구윤진 김창균 임예진 김하은A 김재승 이미화 김자영B 김민영 김근호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백순범 윤혜영 백소율 백하율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⑲오금7 (김영진)	최혜숙	홍명숙	김영진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를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김순자 이병부 김정열 김윤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김순호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⑳오금8 (오국환)	고진순	이선아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재숙 고진순 방주는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자영B 위준승 문정민 김예경
8지역/ 최신혜	㉑문장 장지 (리종화)	최신혜	이가에	송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장영균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나주희 나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웅 김정남B 유정빈 박은선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㉒가락 (김준일)	백소정	최숙영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여동훈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김태운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민호 이서은 노은현 손상현 이균재 이순근 이수선나 허가이
9지역/ 박영인	㉓거여 마천 (신승훈)	박영인	이순덕	신승훈 박영인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천 용 김유남B 이 석 김재우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전주를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이유림
	㉔성내 둔촌 (최영철)	정향란	김은영	심한결 정지혜 심주언 심지언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는 정향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해수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숙현 함재이 최지원 조현우
	㉕고덕 (윤홍광)	장경숙	김지영B	윤홍광 장경숙 윤 현 윤소현B 윤하영 오인태 김자영B 오희립 오희운 이채원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고난을 통해서 발견한 옴의 완전복음

-복음으로 여는 옴기-

옴기 42:5, 야고보서 5:11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다. 구약시대에서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장막절을 지낼 때 전도서를 읽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냈다. 그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밖에 없었다.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알곡이 되어 천국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전도서를 읽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곡이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감사와 영적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미국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이다. 링컨이 11월 넷째 주로 날을 정했다. 세 번째로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낸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정한 날이었다. 추석과 같은 감사가 아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절기를 정한 것이다. 본질적인 의미 자체가 곡식을 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안 되었는데 감사했다는 것이다. 광야에서 음식이 많고 풍성한 것이 아니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 무슨 의미냐면 팔보다 단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말씀으로 행복하기를 축원드린다. 광야에서 육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안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이지 조건이 있는 게 아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왕실의 핍박을 피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오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 죽었다. 그런데 다음 해에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네 번째로 한국이 감사절을 정할 때는 대국에 의해 나라가 찢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자 한 것이다. 오늘 옴도 마찬가지이다. 옴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려고 말씀하고 있다. 옴은 그 때 당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주셨다. 그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복음과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 진정으로 아무 죄 없이 고난당한 분이 그리스도이다. 옴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종교, 선행, 철학, 윤리, 도덕으로 절대 안되고 오직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마약중독자들을 보면 얼굴이 검손하다. 그런데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정죄하는 얼굴을 하고 있다. 옴의 삶이 그것이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으로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셨다. 옴은 고난 중에서 자녀와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었지만 그 결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절로 회복해 주셨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린다. 여러분은 비교적 착한 사람이고 바르게 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되기도 한다.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해야 한다. 그러면 정말 거듭나서 새것이 되는 역사의 시간표가 올 줄 믿는다.

오늘은 옴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먼저 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다. 옴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

(1) 옴기 1장 1절에 보면 옴을 우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2) 그런데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만아들의 이름이 우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옴기서에 나타나는 문화가 족장시대문화이고 율법내용이 없고 재산의 평가기준이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 우스 지역은 지금의 사해바다 동남부지역으로 보고 있다. 즉 옴은 이 우스 지역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옴은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선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방인 중에서도 세계복음화할 인물이 있다. 237나라 5천 종족 안에는 옴과 같이 바르고 의롭지만 복음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을 찾아 완전한 복음, 만왕의 왕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기를 바란다. 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고난 전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욥이 받은 고난의 기간은 30년 정도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70인역의 각주에 보면 욥은 240살까지 살았다고 나와 있다. 족장시대 수명을 보면 100~200세이다. 즉 욥은 70세 정도에 시험을 받기 시작해서 100세까지 30년 동안 고난을 받고 100세부터 고난 받기 전의 수명인 70세 보다 두배 많은 140년을 더 살다가 240세에 죽었다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과 조건이 이 때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장수했었다. 욥은 고난 후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 갑절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의미한다. 즉 욥은 고난 후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다. 갑절의 축복이 왜 그리스도의 축복이냐면, 장자에게는 두배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두배의 축복을 받았다. 즉 두배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이며 그리스도의 축복이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혼 깊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정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 못한다. 나이 들고 그러면 그 문제가 계속 돌아온다. 두세 배로 그 재앙과 저주가 온다. 여러분이 막지 않으면 후대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운명, 사주, 팔자를 완전히 박살내고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의인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고통받는다. 어떤 목사님이 바르게 사셨는데 열등감 안에서 남을 정죄하며 살고 나중에는 죄의식이 괴롭혔다고 한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사상, 성격, 유전자가 여러분에게 호르몬의 문제, 부정적인 생각, 성격문제, 무능함 등으로 계속 괴롭힌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고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하셨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제대로 된 전도나 제자도 못 세워보고 인생을 마칠 수 있다.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기를 축원드린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욥기서의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다.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다. 이는 성경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는 가장 긴 내용이다. 그만큼 욥의 고난에 대한 세 친구와 엘리후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답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욥기 1장과 2장은 의로운 욥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탄에 의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3장에서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고 있다.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러 온 내용이다.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반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바 사람 소발이라”라고 나와 있다.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빌닷과 소발이 격렬히 논쟁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세 친구의 논지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니 욥아 당장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고 욥은 나는 잘못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유없이 나를 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아이들을 꾸중하면 아이들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욥은 어릴 때부터 모든 면에서 바르게 살았다. 그 속에 자기 의로 딱 차있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계속 남을 정죄하는 것이다. 자녀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지낸 것이다. 자녀들이 얼마나 피곤했겠는가. 욥은 그제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제 자기 의인 것이다. 다음은 4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엘리바스는 ‘욥아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4장 7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경우도 있고 죄를 지었는데 넘어갈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나의 기준으로 남의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넘어지고, 부족하고 죄를 짓더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감히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기도하고 기다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고 잣대를 댔다. 또 엘리바스는 욥의 믿음의 수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다. 5장 8절에 보면 “나리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다. 굉장히 엘리바스의 신앙도 좋은 수준이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을텐데 왜 죄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 그 당시 욥의 영적상태는 종교적이고 윤리, 도덕적이었고 선행이 중심이었다. 노방전도를 하다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지은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세상적인 죄를 지은 것만을 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다. 욥기를 통해 원죄를 알려주고 계신다. 바르게 살아도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하셨다. 여러분이 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것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내 힘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도 살리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이다. 완전히 근본이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래야지만 되어진다. 체질이 바뀌어야지 노력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하여 욥은 엘리마스에게 첫 번째 대답을 하고 있다. 욥은 말하기를 이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주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6장 9절에 보면 “이는 곧 나를 말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말하시도 기뻐하셨다는 의미이다.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랬지만 나중에 원망을 하는데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짧으면 우리가 감사하며 이겨낸다. 그런데 그게 10년, 20년이 되면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드린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 욥은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던지는 친구들의 욥은 말이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고 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장 25절에 보면 “욥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나”라고 욥은 말하고 있다. 욥은 말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위로하는 말과 기도하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계속 욥은 말을 하면 더 힘들어질 뿐이다. 문제 앞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기를 축원드린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 수가 사람 빌닷은 너와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하였다. 자녀를 잃어서 고통당한 사람 앞에서 너와 자녀 탓이라고 말한 것이다. 8장 4절에 보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요절 말씀 즉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은 빌닷이 욥을 훈계하면서 했던 말씀이다. 즉 ‘빨리 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은 창대하게 말되어 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고집을 펴우고 있느냐라는 의미로 사용한 말이었다. 빌닷의 말에 대하여 욥은 다음과 같이 대답 한다.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과 누가 옳은지 재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욥의 근본신앙과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여러분도 착해 보이지만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완전복음으로 서기를 바라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학교를 안 오는 애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학교만 오라고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꾸짖는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꾸짖고 연약한 사람은 위로한다. 욥도 마찬가지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신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응답받는 욥의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 9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9장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이 하나님을 고발해서 재판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실적으로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한다. 우리 청년이 동생은 사춘기고, 엄마는 갱년기에 아빠는 바람을 피고 알콜중독이라 미치겠다고 하더라. 괴로우면 괴로운 말이 나온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쏟아지니 욥도 근본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완전히 복음으로 체질화되어 복음이 영혼 속에 깊이 녹아 영이 커져야 한다. 그러면 생각, 철학, 사상, 기분 다 뛰어 넘는다. 성경을 보면 사춘기도 없고 청년 때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역사해서 호르몬도 뛰어넘는 것이다. 성경에는 갱년기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다음으로 욥기 11장에서는 세 번째 친구 나아파 사람 소발의 말이 나오고 있다. 소발은 욥이 회개는 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한다고 꾸짖고 있다. 진짜 의인이나 믿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 말하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완전복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린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비슷한 주장으로 31장까지 3번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이다. 엘리후가 내용을 다 정리한 후 하나님이 욥에게 70가지 질문을 하신다. 욥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냐고 묻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나의 의와 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윤리, 도덕, 선과 종교로 안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하신 것이다.

욥의 말에 대꾸도 안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운행하시고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다. 위기와 어려움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욥기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는 복음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째로 욥기의 욥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당시 욥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2) 두 번째, 욥은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실수한 세 친구들에게 욥을 통하여 제사를 지내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3) 세 번째, 욥의 세 친구는 인간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틀리지 않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과 종교보다 더 중요한 복음적인 용서와 원죄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4) 네 번째, 욥은 세상적으로는 완벽하였다.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그는 몰랐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다.(롬3:10, 롬3:23)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가 완벽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다섯 번째로, 욥기서를 통하여 이해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이해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①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단련시키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다.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더 큰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②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신앙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는 뚜렷한 복음적인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즉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참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사탄과 영적 문제 인간의 죄악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게 더 온전하게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6) 그리고 욥기서에서는 후대들은 엘리후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못 깨닫는 것을 보고 후대들은 비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엘리후와 같은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과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사랑을 믿고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참사랑 RUTC현황 (예제능체임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킹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라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랩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조수영 집사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목사(전도원)	김양순 010-8328-013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교육전도사	배고은 (네덜란드파송)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헌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최영철 주재진 윤두영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김종복 신승훈 김성열 장영균 라중화 김선옥 김현 허경열 서성원 여준석 김경희 김요한 배승찬 양경심 김석재 임근일 최철규 윤홍광 이은숙 최신헌 이미자 최양호 김금남 여상훈 최진희 김준일 박영인 유승범 도상철 김순호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박현주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헌 최송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참사랑홀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3:30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수 오후 7:30				
금요심야기도회	금 오후 8:0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주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증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참사랑교회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해외선교지	군파송자
[일본 히로시마참사랑교회] 심주환-김현숙(심성지 심성하 심성오 심성권)	[육군] 백승원 이현우 송영민

해외파송자 (29)

[미국] 최형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이슬 김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정혜찬
[네덜란드] 배고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베트남] 윤소현A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7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넳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